

# 전북 꿈사다리 상담밴드 '주목'

### 휴업기간 진학 정보에 목마른 학생·학부모에 맞춤형 상담 호응

"전북 꿈사다리 진로진학 상담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밴드에서 자료 많이 받아보고 저희 아들이 2020학년도 간호학과에 진학합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전북 꿈사다리 진로진학 상담밴드 학부모 글 발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롯된 계속적인 휴업연장에 따른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온·오프라인 학습자료와

학습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5월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입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설된 '전북 꿈사다리 진로진학상담밴드'가 휴업기간 중 진학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상담 밴드는 수험생들이 궁금해 하는 대학별 전형 요소나 전년도 입시결과 등의 질문에 대해 전북 대입지원단의 상담교사가 직접 답변하는

실시간 온라인 상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담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진학 전문가들에 비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지인 성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나의 상담 글에 여러 명의 상담교사가 추가 답변을 달아주거나, 도내 입시현황에 대한 깊이 있

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따뜻한 맞춤형 상담으로 대학입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꿈사다리 상담 밴드에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입시설명회 일정이나 수험생을 위해 개발한 진학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새로 준비를 마친 전북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http://jinro.je.go.kr>)에도 휴업기간 중 도내 고등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입시정보들이 탑재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대학교는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 평가 '우수'

### 온라인 취업 상담 등 도입 호평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2019년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대학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4차년도 성과평가는 전국 총 106개 대학일자리센터를 대상으로 △인프라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지역 청년고용지원서비스 및 청년체감도 등 총 3개 영역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결과 전주대는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2016년 10

월 호남권 대학 최초로 개소해 지역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지원 기능을 통합했다. 이후 지역 내 진로 및 취·창업지원의 허브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호인 총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의 채용이 미뤄지고 청년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청년들이 공백 없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취업 상담과 직무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전북대, 비대면 수업 7일 연장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학생들의 안전한 대학생활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수업(재택수업)을 1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던 비대면 수업은 4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전북대에 따르면 4월 11일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구성원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연장도 염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대는 3학점 기준으로 주당 1시간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교원들에게 추가로 공지하는 등 비대면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실습·실습·실기 수업의 경우 비대면 방식의 수업을 허용키로 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선정돼 2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 전북대, 전방위적 창업지원 메카 자리매김

### 전북대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선정... 22억원 국비 확보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선정돼 2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에도 예비 창업자의 초기 사업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사업'에도 선정된 바 전북대는 이 두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보유 아이템을 통한 예비창업자를 비롯한 초기창

업자까지 육성 및 지원하는 창업지원기관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초기창업패키지는 혁신 및 신사업 분야의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창업 사업과 자금을 비롯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 지역 거점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다.

이에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이 사업을 통해 23명의 창업자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서류 및 발표평가 이후 사업화 지원 및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역거점 창업육성 프로그램, 실천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올해만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과 이노폴리스랩스 지원사업 등 4개의 창업 관

련 정부 지원 사업에 모두 선정되며 전방위적 창업 지원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대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올해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이노폴리스랩스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초기창업패키지사업으로 이어지는 예비창업자와 초기기업을 위한 4가지의 지원사업을 모두 수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단계별로 창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호원대 치위생학과, 2019 졸업생 취업률 전국 1위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치위생학과 2019년 2월 졸업생 취업률이 96.9%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알리미가 2019년도 전국 27개 대학 치위생학과 및 54개 전문대학 치위생(학)과 취업률을 발표했다. 이 중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가 96.9%로 취업률 1위에 등극했다.

치위생(학)과 졸업자들의 한 해 취업률이 84% 수준인데 비해 호원대는 96.9%로 전국 평균보다 12.9%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북권 유일한 4년제인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는 2010년 개설돼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4년부터 이번 졸업생

들까지 평균 89%이상의 높은 취업률과 98%이상의 국가고시 합격률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호원대 치위생학과만의 체계화된 전공교육과정, 다양한 자격증과정 운영, 일대일 학생 맞춤형 집중 지도를 통해 전문지식 및 기술 함양과 인성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치과 위생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혜진 치위생학과장(치위생학과 교수)은 "빠른 노령화 진행으로 구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학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